

“아이돌학교 종이 땡땡땡~”

엠펙, 신개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출격 ... 오늘 첫 방영
평범한 소녀 41명 성장기 ... 이순재·김희철·바다 등 출연

이번에는 보이그룹이 아니라 걸그룹, 11명이 아니라 9명이다. 시청자가 직접 데뷔할 멤버를 결정하는 방식은 똑같다.
엠펙 ‘프로듀스101’ 시즌2의 흥행에 힘입어 새로운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오는 13일 첫 방송한다.
수많은 지원자 중 41명이 심사를 거쳐 ‘아이돌학교’에 입학했으며, 이들은 교장 이순재를 필두로 한 최고의 트레이너 군단으로부터 아이돌로서 필요한 교과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담임교사로는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음악 프로듀서로는 블랙아이드 필승이, 보컬 트레이너로는 가수 바다와 장진영이, 안무 트레이너로는 안무가 박준희와 가수 스테파니가, 체육 교사로는 헬스 트레이너 윤태식이 나선다.
커리큘럼도 독특하다. ‘아이돌학 개론’, ‘갈군무의 이해’, ‘아이돌 멘탈 관리학’, ‘발성과 호흡의 관계’, ‘무대 위기 대처술’ 등이 대표 과목이다.
데뷔초는 ‘프듀2’와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결정, 방송 직후 데뷔한다. 시청자는 투표에 1회 이상 참여하면 ‘육성회원’ 자격을 얻으며, 이후 온라인 선행 평가 투표와 매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신유선 PD는 12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프듀2’와 다른 점에 대해 “‘프듀’가 연습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다면 ‘아이돌학교’는 일반인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리얼리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듀’는 사

전 온라인 투표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방송마다 생방송 투표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전일 참석할 ‘아이돌학교’ 학생 중에는 가수 김홍국의 딸 김주현,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에 출연했던 나미·지원·은서, ‘모모랜드’를 찾아서’에 나왔던 신시아, ‘프로듀스101’ 시즌1에 출연했던 이해인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 PD는 “사실 처음 참가자 중에는 걸그룹 출신들이 매우 많았다”며 “그러나 오디션 당시 소속사가 없는 친구들로 선발했다. 그 친구들은 데뷔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데뷔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해 심사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101’ 시즌2의 선풍적인 인기로 힘입은 후속 프로그램으로도 눈길을 끌었지만, 무엇보다 이순재의 출연이 화제가 됐다.
이순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순결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이라며 “소녀들이 원대한 꿈을 꾸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여기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철저한 훈련과 커리큘럼, 투철한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키우려고 작정하고 나왔다”며 “모든 여건이 충족될 수 있게 전문가 선생님들과 훈련일제가 돼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순재는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게 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조용필 씨 같은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소녀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며 “요즘은 아이돌 활동 후 배우로 전향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결혼도 해서 엄마가 된다. 결국 인격에 관한 문제다. 소녀들이 은퇴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훈련을 시키는 게 제 의무”라고 말했다.
함께 연출하는 전경남 PD는 방송 전부터 불거진 출연자 과거 행실 논란에 대해 “내부 검증 프로세스에 의해 출연자들과 접촉했으며, 논란이 된 인물에 대해서는 학교 등에 확인해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열정이 예쁠 수도 있다. 방송이 막상 나가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13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영화 '장산범' 중 한 장면.

“매 순간 뭉가에 홀린 듯 연기했죠”

‘장산범’ 엄정아, 14년만의 스릴러 ... 내달 17일 개봉

스릴러 영화 ‘장산범’(사진)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엄정아는 “모든 장면이 쉽지 않았다”며 “무언가에 홀린 듯 연기했다”고 말했다.
영화 ‘장화, 홍련’ 이후 14년 만에 스릴러로 돌아온 엄정아는 12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장산범’ 제작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달 17일 개봉하는 ‘장산범’은 목소리를 흉내 내 사람을 홀리는 존재를 둘러싸고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룬다.
아이를 사고로 잃고 심신이 약해진 엄마 희연 역을 맡은 엄정아는 “시나리오를 읽고 스토리의 탄탄함에 매력을 느꼈고 희연 역의 감정선이 공감을 불러일으켜 욕심이 났다”며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장화, 홍련’의 엄마 역과는 완전히 달라진 엄마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극 중 희연은 도시를 떠나 장산에 내려가 살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숲 속을 헤매는 낯선 소녀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딸과 이름과 목소리가 같은 여자가 집에 찾아온 이후 희연의 가족은 미스터리한 일에 휘말리게 된다.
엄정아는 촬영하면서 “감정적인 소모도 많고 체력적인 소모도 많았다”며 “모든 장면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둥굴 안에서 찍은 장면은 먼저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었고, 숲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장면을 찍을 때는 물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 그 와중에 연기를 하긴 했더라”면서 “뭉가에 홀렸던 것 같다”며 웃었다.
엄정아는 낯선 소녀 역을 맡은 아역배우 신린아에 대한 극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린아가 촬영 당시 7살이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았던 감독의 지시를 연기로 표현하더라”며 “내가 린아에게 말할까 봐 긴장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스릴러 ‘숨바꼭질’로 560만 관객을 모은 이정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소리로 사람을 홀린다는 설정에 재미를 느꼈다”는 허 감독은 “이 작품은 정각적인 공포에 집중형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각적인 표현도 무섭지만 청각에 집중하게 되면 상상력이 증폭된다.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이 ‘장산범’만의 매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에서의 소리는 관객들의 허를 찌르며 나타날 때 가장 무서운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산범’에서는 가장 친숙한 톤에서 이상한 느낌을 주며 그 긴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10 국회인사청문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11		00 다큐멘터리 3일 (재)		
12	00 KBS 뉴스 12	00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기분 좋은 날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림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라베		25 도둑놈, 도둑님 (재)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의 모든 다큐 (재)	25 드림 주니어 55 뽀글아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공간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느리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견문록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포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끄지마 15 돌이온 복단지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속보하는 TV 인사이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다큐 2부작 우주극장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단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빛날 스페셜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터네 영절)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옛날 시어머니 요즘 며느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돌양공)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영수 할머니의 행복한 두부 식당)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미안만 불장수, 엄마의 꿈) 14:30 호기심나라 오디오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완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뽀뽀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 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이 보다 좋은 수) 없다 태극 - 미지의 뒷마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지금 만나러 갑니다) 21:50 과학 다큐 버온드 (인간의 후각을 넘어서라)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0년 만에 오해를 풀 개구멍 김경희와 할머니)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윤5월 20일 辛丑)
子	4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오늘에 이르러서 야 드디어 이루게 된다. 60년생 어지간하면 나서지 않는 것이 낫다. 72년생 원리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17, 81	42년생 실용적으로 대응하라. 54년생 시지는 달라도 귀착하는 바는 대동소이 할 것이다. 66년생 구실을 들을 수도 있다. 78년생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90년생 불명확하므로 지켜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88, 46
丑	49년생 도래 위에 쌓아 놓은 성곽에 불과하다. 61년생 분위기의 조짐이 일차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73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85년생 생각지도 못한 폐야이 보이니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5, 83	43년생 무탈할 것이니 노과심을 버려도 된다. 55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마라. 67년생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방하리라. 78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라. 91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42
寅	50년생 주간에 지우친다면 공든 탑도 쉽게 무너진다. 62년생 실행 방법이나 기교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옳이 하도다. 74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라서. 86년생 상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6, 79	44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6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을 야기한다. 68년생 힘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라. 80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7, 33
卯	51년생 착실하게 정도를 걷고 있다면 기쁜 일이 생긴다. 63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75년생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정의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87년생 배분다면 반드시 복 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43, 49	45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 한다면 길하다. 57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9년생 대단히 흥겨운 날이 될 것이다. 81년생 상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전체의 관측에 부합한다. 행운의 숫자 : 65, 06
辰	52년생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하면서 그로 인해 힘들어지겠다. 64년생 과잉 현상은 들뜬 상황을 예고한다. 76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88년생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04, 97	46년생 일석이조의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기대해도 좋다. 58년생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한다. 70년생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 82년생 굳이 생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4, 03
巳	53년생 재정은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65년생 불굴의 투지로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목적이 이를 것이다. 77년생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다. 89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도다. 행운의 숫자 : 16, 68	47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도 끼어들지 못하리라. 59년생 넉넉하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1년생 많은 이익이 따른다. 83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61, 14